

[날줄씨줄] 유산적 가치

등록 : 2011년 12월 04일 (일) 19:57:15
최종수정 : 2011년 12월 04일 (일) 19:57:15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스스로를 지식 노마드이자 '경계인'이라 부르는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는 자신의 저서 「제주 기행」에서 '잠녀 하나가 사라지면 제주도의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 경고했다. 아프리카의 현자라고 불린 민속학자이자 소설가인 아마두 함파테 바가 1962년 유네스코 연설에서 남긴 "아프리카에서 한 노인이 숨을 거두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유명한 말을 되새겨 보지 않더라도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알 수 있다. 지난달 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ICH) 공식 출범식에 참석했다 제주에서 추가 전문가 회의를 진행한 관련 전문가들의 입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다. "제주잠녀·잠녀문화는 현재까지 공동체가 남아있는 해안 중심의 여성 문화로 무형문화유산적 가치가 충분하다".

유네스코는 지난 2003년 문화 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했다. 무형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협약이 요구하는 '범주'에 포함된다는 말이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올해 정보보완결정(등재 보류)제도를 도입하고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신뢰성을 위해 예년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각 국가간 '소리 없는 전쟁'을 반영했다.

올해 제주도는 제주잠녀·잠녀문화의 세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라는 최종 목표를 공식화했다. 교박 3년의 진통 끝에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다시 헛수로 3년이 걸려 만들어낸 결과다. 하지만 계속해 채워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이기도 하다. 아직 등재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유리한 점을 찾고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유 무형문화유산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이점을 활용한다면 이전처럼 멀리 돌아갈 이유는 없다. 그런데도 느긋하다. 제주를 찾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잠녀도 그렇고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한가.